

Ⅳ. 6·25전쟁과 선교 부흥

1. 뜻하지 않은 전쟁

1950년 6월 25일 뜻하지 않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논산본당은 일제강점기 말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다시 한번 겪었다. 이때 본당이 어떠한지지에 대한 일화에 대해 생제 신부가 남겨놓은 「전시일기」¹³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이 나던 날, 생제 신부는 전쟁 소식을 들었으나 2년 전에 있었던 국지전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군인과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6월 29일에는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골롬반외방전교회 아일랜드 신부들이 성당으로 피난을 왔고, 30일에는 서울에서 부여 출신 신학생들 2명이 피난을 내려왔다. 7월 4일에는 피난민을 가득 태운 화물 기차가 논산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을 내어 도와줄 생각을 못할 정도였다.

7월 14일 생제 신부는 강경본당의 베르몽 **Bermond, Jules Marie**(1881~1967, 한국명:목세영) 신부 사제관을 오가며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베르몽 신부는 69세의 고령인데다 열병에 걸려있어 꼼짝도 못하였다. 이에 생제 신부는 베르몽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주고, 성당의 성체를 모두 영한 후 논산으로 돌아왔다. 이미 인민군이 공주를 넘어왔다는 소문이 있던 터라 논산본당도 난리가 났다. 본당 수녀들은 산속 공소로 피신하였고, 남아 있는 교우들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달라고 하소연하면서, 한편으로는 생제 신부에게 피신하라고 권하였다.

그날 생제 신부는 본당을 떠나기에 앞서 두 가지 조치를 했다. 하나는 구자곡면에 있는 죽평공소로 가서 교적들과 성사 대장 등 각종 문서들을 맡기는 일이었다. 생

죽평공소 박찬근 루도비코(1933년생) 증언

- 교적에 대한 증언 -

전쟁이 나자 성 신부님이 교적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다. 아직 인민군이 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다. 형님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기에 그 교적을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 천주교 교적이니 꼭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피난하셨다. 신부님이 타시던 자전거는 프랑스제였는데 천천히 저어도 빨리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 공소에 성 신부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나도 타봤었다. 한 번은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 오라고 하셔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시장 사람들이 다 구경할 정도였다.

우리 집 아랫방 한 칸에 두꺼운 판자로 만든 다락이 있었는데 그곳에 교적을 보관했다. 그 다락을 왜 만들었나? 당시에는 밀주를 만들어 먹으면 굉장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었다. 그 교적은 다락 위에 놓아둔 상태에서 노동당에 집을 압류 당하였다. 우리는 사랑방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다락 밑에 숨겨있는 교적이 들통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그때만큼 목주기도를 열심히 했던 적도 없다. 하루에 30페이지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우리 집 4~500미터 앞에서 신호탄이 뱅뱅하고 터졌다. 그러자 집에 있던 인민군들이 집에 있던 쇠스랑, 삽, 나무창 등 모든 농기구를 들고 싸우러 밖으로 나갔다. 그때 내가 다락으로 가서 교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감춰놓았다. 그때 우리 형님은 논산성당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다. 미군들이 대교 다리를 폭파했기에 밤이 되면 인민군들은 성당의 수인들을 시켜 가마에 흙을 담아 연결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낮에 비행기가 와서 또 부수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 수인들이 많아지자 결국 성당에 있던 이들을 대전형무소로 압송했다. 인민군들이 물러나고 나서 내가 교적을 훔쳐지고 성당으로 와서 신부님께 드렸다. 그 교적은 지금까지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제 신부는 자전거를 타고 공소회장 집으로 가서 이 문서들을 맡겼다. 박 회장은 그것들을 전쟁 기간 동안 다락에 숨겨두었다가 평온을 되찾은 후 아들 박찬근을 시켜 본

당에 반납하였다.

떠나기 전 생제 신부가 취한 또 다른 조치는 본당을 김명제(베드로, 1873~1960) 신부에게 맡기는 일이었다. 1873년생¹³¹인 김 신부는 은퇴한 후 1949년경부터 논산 성당에 기거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은퇴 사제들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큰 본당에서 거주하며 주임 신부를 도우며 사는 것이 관례였다. 77세 노인이었던 김명제 신부는, 인민군들도 노인은 존중해줄 것이라며 생제 신부에게 피난을 권하였다. 결국 생제 신부는 김 신부에게 본당을 맡기고 신학생 2명과 함께 울면서 부산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인민군에게 점령된 기간 동안 성당은 압류되어 정치보위부 본부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논산지역에서 체포한 ‘반동분자들’을 성당 구내에서 심문하고 감금해두었다. 성당 안의 기물들은 다 파손되었고, 그중 성모상은 인민군들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 사격 연습을 하여 총구멍을 내기도 하였다.¹³² 한편 본당을 맡게 된 김명제 신부는 사제관에서 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한 번은 김 신부가 삼종기도를 바치는 소리가 발각되어 “이놈의 영감 비행기 하고 연락한다.”¹³³며 매를 맞고 감금되었다. 아마 라틴어로 삼종기도를 바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듯하다.

부산에 피신해있던 생제 신부는 서울이 수복되자 1950년 10월 5일 성당으로 돌아왔다. 생제 신부는 부서진 성당과 도난당한 사제관을 대략 수습하고 가을 판공에 들어갔고, 성탄 전에 200여명이 넘는 교우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었다.¹³⁴ 이렇게 평온을 찾는 듯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남쪽으로 확대되자 생제 신부는 다시 한번 부산으로 피난하여 1951년 3월 중순까지 머물렀다.

1951년 3월 14일 트럭을 타고 부산을 출발한 생제 신부는 다음 날 새벽 4시경에 성당에 도착했다. 하지만 생제 신부는 자신의 본당에서도 한동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가 부산에 가 있는 동안 미군들이 사제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 경찰들이 수녀원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녀들이 오히려 다른 집을 세놓아 성당 밖에서 살아야 했다. 게다가 성당 안팎은 더 가관이었다. 미군들이 기거하기 전, 생제 신부의 사제관에는 터키 군인들이 거주하였다. 당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터키 군인들은 사제관의 가구들과 책들은 물론 땀감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사용하였다. 더구나 피난민들까지 성당에 기거하며 같은 일이 벌어져 성당 주변에는 울타리 하나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었다.

“(1951년) 3월 17일 토요일 … (중략) … 내 집(사제관)을 태운 장본인은 터키군들이다. 터키군들은 빨갱이들보다 더 나에게 손상을 입혔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보내며 땀감이 부족하자 그들은 내 집의 가구들이며 학교 책상들까지 닥치는 대로 모두 땀감으로 썼다. 거기에 피난민들까지 합세한 모양이다… 울타리도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남아 있는 거라고는 소파 2개, 책상 1개, 장롱 1개, 큰 탁자 1개와 작은 탁자 1개 그리고 다 찢어지고 때 묻은 책 몇 권이 고작이다.”¹³⁵

이런 가운데에도 3월 18일 주일을 맞아 미사를 봉헌하였다. 아침 7시 30분 미사에 교우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고, 9시 30분 두 번째 미사에도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다음 날부터 그동안 망가진 부분들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기왓장들과 돌들을 주워 모아 성당 입구에 돌을 깔아 교우들이 드나들기 편하게 했다. 이후 하나 하나 수리를 해나가며 평온을 되찾아갔다.

김명제 베드로 신부(1873~1960)



1873년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소길리공소)에서 태어났다. 합덕본당 퀴를리에 신부에게 추천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고, 1908년 6월 17일 사제품을 받았다. 처음에 복간도에서 1년간 사목활동을 했고, 이어 경남 문경본당과 황해도 장연본당 주임을 역임하였다. 1928년 황해도가 감목대리구

로 설정되어 한국인 사제들의 자치 구역이 되자 감목대리로 임명되었다.

1942년 황해도 감목대리구가 폐지되자 전주교구로 이적하였다. 그리고 화산(나바위)본당, 석동본당 주임을 역임하였다. 그는 1948년 7월 은퇴하여 전주교구에 잠시 머물다가 1949년 6월 이전부터 논산본당에 거주하였다.¹³⁶ 생제 신부의 기록에 의하면 김명제 신부는 선종할 때까지 논산에서 지낼 예정이었다.¹³⁷ 그러나 6·25전쟁 중 사제관이 불타게 되자 1951년 3월 이후 논산을 떠났다.

김명제 신부는 논산과 나바위 본당 일대에서 “옷, 밥, 집! 신信, 수守, 득得!” 신부로 알려져 있었다.¹³⁸

그 뜻은, “인생은 의衣, 식食, 주住가 주요한 것이라 영혼도 그와 같이” 중요하며, “요리문답은 믿을 교리信 지킬 계명守, 성충을 얻는 방법得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김 신부가 누누이 강조하던 내용이었다.

논산을 떠난 김명제 신부는 대구교구로 옮겨 거창본당에서 사목하였고, 1957년 신설된 부산교구에 소속되어 진주 장재리본당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다.¹³⁹ 말년에 그는 정신분열 증상이 있었는데, 1960년 10월 부산교구청에 가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 89세의 나이로 선종하였다. 행려자 수용소에 안치되어 있던 그의 시신에는 신분증도 없고, 성직자 복장을 입은 것도 아니어서 한동안 실종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김명제 신부의 주머니에서 나온 묵주가 단서가 되어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¹⁴⁰

2. 전쟁 후의 선교 부흥

생제 신부가 논산으로 다시 돌아온 1951년 3월에도 아직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들이 주둔하며 성당을 사용하고 있어서 교우들이 오히려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형편이었다. 3월 22일 성 목요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 임시 제대를 설치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한편 인근 산간지대에서는 여전히 빨치산이 출몰하여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생제 신부는 산골 공소를 방문할 때는 낮에는 공소에서 성사를 집행하고, 밤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교우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잠을 자야 했다.

아직 휴전이 이뤄지지 않은 긴장감 속에서도 논산본당은 앞으로 시작될 최대의 선교 부흥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에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성당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회복지 활동으로 말미암아 새 영세자들이 급증하였다. 이런 현상은 논산본당 만이 아닌 한국 교회 전체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신자 증가율이 높은 나라였다.

—
전쟁 전후
대전교구 교세
(1949~
1955년). 괄호
안은 이전
대비증가율

연도	1949년	1953년	1954년	1955년
대전	1,308명	2,456명(87.8%)	2,645명 (7.7%)	2,890명(9.3%)
강경	774명	1,027명(32.7%)	1,140명(11.0%)	1,202명(5.4%)
공세리	1,372명	1,435명(4.6%)	1,499명(4.5%)	1,649명(10.0%)
공주	1,247명	1,827명(46.5%)	1,860명(1.8%)	2,185명(17.5%)
금사리 ¹⁴¹	1,008명	1,492명(40.8%)	1,492명(0%)	1,158명(-22.4%)
논산	1,672명	2,224명(33.0%)	2,371명(6.6%)	2,535명(6.9%)
합덕	2,554명	2,804명(9.8%)	3,059명(9.1%)	3,210명(4.9%)
당진 ¹⁴²	731명	1,604명(119.4%)	1,837명(14.5%)	1,895명(3.2%)
서산	2,372명	2,029명(-14.5%)	2,521명(24.5%)	2,674명(6.1%)
예산	2,374명	3,026명(27.5%)	3,124명(3.2%)	3,547명(13.5%)
온양	1,108명	1,118명(0.9%)	1,280명(14.5%)	1,354명(5.8%)
장항	741명	1,200명(69.1%)	1,182명(-1.5%)	1,331명(12.6%)
천안	1,347명	1,911명(41.9%)	2,003명(4.8%)	2,137명(6.7%)
조치원			12명	352명
총계	17,300명	21,701명(25.4%)	26,014명(19.9%)	28,721명(10.4%)

전쟁 기간 중 이웃인 금사리본당 주임인 물리마르 신부가 인민군에게 피살되어 공석인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생제 신부는 한동안 두 본당을 관할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논산본당은 전쟁을 겪는 동안 신자 수가 이전에 비해 33%가 증가하여 교우가 2천 명을 넘어섰다. 휴전 협정이 맺어진 1953년에는 특히 영세자가 많아 생제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뻐할 정도였다.

“올해 모두 403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인 영세자가 134명이고 어린이 영세자가 165명이며 저의 두 본당에서 중부성사를 받은 성인은 39명, 어린이는 65명이 됩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은 선교사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를 들어서 이만큼 수확을 거둔 선교사는 없을 것입니다(인도차이나의 경우라면 또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꿈인 한국이며, 만세입니다!”¹⁴³

또한 이 시기에는 관할 공소들의 건물 축성이나 부지 확보가 이루어졌다. 가령

연산공소는 1954년경 연산시장 내 가정집을 매입하여 공소를 시작하였고, 2km 떨어진 점촌공소 교우들이 연산공소에서 참례하였다.¹⁴⁴ 같은 해, 22평 규모로 상월공소 건물이 완공되었다.¹⁴⁵ 1955년에는 백석공소 부지를 확보하였다.¹⁴⁶ 1956년에는 이신문(시몬) 회장을 중심으로 화마루공소 15평 강당이 마련되었다.¹⁴⁷ 1957년 6월 19일에는 신도내(신도안)공소가 개설되어 축성식 겸 견진식이 이루어졌다.

“신도안에 천주교, 충남 논산군 두마면 신도안^{新都內}이라 하면, 이태조^{李成桂}가 한양에 도읍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 자리 잡고 얼마 동안 역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한양으로 옮겨간 곳이다. 현재까지도 그때 주초용으로 운반해다 놓은 수백 개의 거대한 석재가 ‘대궐터’라는 곳에 있고, ‘종로 터’이니 ‘인경봉’이니 하는 이름도 지금까지 전해오는 곳인데 주민은 약 3천 호 되지만 종교는 ‘상제교’를 주로하고 동학, 불교, 공주 계룡산을 이웃한 만큼 『정감록』 신봉자도 많으나 천주교만은 퍼이지 못하고 있던 중 작년 여름부터 신도안에 사는 신^申景均 씨와 연락이 있게 되어 이 기회에 많은 이가 천주교를 알게 됨에 따라 열심히 남녀 교우들이 희생적으로 전교하며 교리를 가르친 결과 지난봄에 85명이 영세 입교하였고, 현금 예비자는 150여 명이라는 바, 이들이 한곳에 모일 장소가 없으므로 논산본당에서는 신도안에 강당을 짓고자 노력을 시작하였으므로 성신강림주일은 재강당에서 침례

—
1957년
6월 19일,
신도내공소
(신도안공소)
봉헌식 및
견진기념



를 드리리라는데 강당만 지어 놓으면 영세 입교자는 계속하리라 한다.”¹⁴⁸

3. 사회사목의 확대

전쟁 이전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조선 시대 내내 박해를 받으며 성장하였기에 교우들 대부분은 산골이나 외진 곳에서 가난하게 생활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점촌(옹기촌) 사람들이나 믿는’ 하층민들의 가난한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해방이 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다.¹⁴⁹ 남한에 주둔한 미군들 중에는 신자들이 많아 그들이 성당에 나오게 되고, 열심한 교우인 장면(요한, 1899~1966) 박사의 국내외 활동이 부각되면서 천주교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6·25전쟁 후 구호물자를 통한 사회복지활동은 천주교 인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논산본당의 경우 급식소를 차려 상시로 먹거리를 나누는 한편 약을 나누어주는 시약소, 양로원, 나환자들을 위한 양생원(성광원)을 운영하며 복지 활동에 적극 나섰다. 1955년에 교구장 라리보 주교가 작성한 보고서에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곳(논산)은 또한 미국인 후원자들의 지향에 따라 끓인 우유를 상시로 나누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봉사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한국 수녀들의 협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착한 수녀들은 시약소도 운영합니다. 논산·공주·서산 본당,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수녀들은 복음화에 좋은 효과를 내는 협조자들입니다. 논산과 공주의 보건소 *dispensaire*, 서산의 작은 병원을 통해 수녀들은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진리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니다.”¹⁵⁰

1) 급식소 운영

논산본당의 급식소는 유명하였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분유, 옥수수 등을 끓여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지역민들에게 매일 급식하였는데 1955년 당시에는 교구의 유일한 사례였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행해진 이 급식은 1932년에 논산에 진출한 샬트르회 수녀들의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

2) 싼뿔양로원 설립¹⁵¹

1952년 10월 하순 경 논산본당 오채경(말지나) 수녀가 성당 문간에 쓰러져 있는 걸인 노파를 발견하고 대세를 주고 부엌방을 마련하여 간호하였다. 그 노인은 부엌방에서 1주일 남짓 머물다가 선종하였고 본당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후 사망에서 무의탁 노인들이 모여와 입주를 청하였으므로 거절할 수 없어 할머니 10여 명을 부양하게 되었다. 1953년 1월 3일 양로원 인가를 받아 교구장 라리보 주교의 경제적 원조로 운영해나갔다. 초대 원장은 생제 신부로 처음에는 논산본당에 딸린 시설이었

1955년경
논산 급식소





으므로 본당 구내에 학교와 더불어 운영되었다. 1965년 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다가 1978년 9월 15일 부창동에 585평의 새 부지를 마련하여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양로원에 받아들인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행려자들이 성당을 찾아왔다. 이런 분들은 성당 옆 창고에 짚을 깔아주고 묵을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대세를 주었고, 공원묘지에 묻어주었다.

3) 시약소 운영

시약소(施藥所)는 1932년 10월 살트르회 수녀들이 논산에 진출하면서 시작된 듯하다.¹⁵² 2대 주임 공베르 신부가 수녀회를 초빙한 목적 중 하나가 시약소 운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운영 실태를 잘 모른다.

해방 후의 기록에 의하면 1948년경 논산 수녀원에 시약소가 설치되어 약을 실비로 판매하고, 가정방문 때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고 한다.¹⁵³ 다른 증언에



의하면 생제 신부가 논산에 부임하고 나서 1949~50년경에 열었다고도 한다.¹⁵⁴ 시약소는 전쟁 후에도 계속 운영되어 1955년을 기준으로 대전교구 내에서는 논산, 서산, 공주 본당 세 곳에서 샬트르 수녀회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었다.¹⁵⁵ 시약소 외에 보건소도 운영했다는 짧은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다.

4) 양생원(성광원) 설립

성광원의 전신인 양생원은 한센병(나병) 치료를 위해 봉사하는 메리놀외방전교회 서 요셉 신부가 1957년부터 이동 진료반을 이끌고 논산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⁵⁶ 이동 진료는 치료를 받던 라진호(다두)와 논산본당 생제 신부의 후원 아래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1957년 12월 4일 정석주 씨 외 17명이 기성회를 조직하여 ‘양생원’을 발족하였다. 양생원은 가톨릭 구제회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고, 1958년 김재명(노랜조) 등 17명의 교우로 공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공소 예절을 할 곳이 없어 나석주 씨의 방에서 예절을 드리다가 토담집 강당을 마련하여 10여년간 유지하였다. 이후 다른 곳에서 이주해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교우들이 늘어나자



1973년에는 27평 규모의 강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5) 사회복지와 교육 활동 표창

1960년 2월 『경향잡지』에는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을 극찬하는 ‘국제 가톨릭 뉴스’가 실렸다. 한국은 전교 지역 중 선교 1위를 차지하며 1959년 입교자가 약 6만 2천 명이나 된다고 보도되었다. 더하여 미래의 전망도 아주 밝게 평가되었다. 종교의 자유, 정부로부터의 격려, 교통의 편리함, 한국인들이 교회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희생을 바친다는 점이 밝은 전망의 이유였다.¹⁵⁷

한국 교회가 선교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산본당 역시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1960년 10월 생제 신부는 강경경찰서의 초청을 받아 70여 명의 경찰들에게 종교 교양 강좌를 실시하였다.¹⁵⁸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 경찰들이 논산 성당에 상주하여 성당을 사무실로 사용했기에 성 신부가 오히려 남의 집을 빌려 살아야 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상황이었다.

1960년에는 논산본당과 연계된 사회복지 활동들이 인정받아 정부와 충청남도

의 표창을 받았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10월 3일 사회사업 공로자들을 표창하였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대전 충남애육원 원장 오기선 신부와 논산 요셉양로원 원장 생제 신부가 표창장을 받았다.¹⁵⁹ 같은 날, 논산 요셉양로원을 창설 때부터 운영해온 샬트르회 오채경(말지나) 수녀가 표창장과 무궁화 금메달을 받았다. 1961년 7월 들어 또 한 번의 표창이 있었다.

“지난 7월 10일 충남 지사실에서 논산본당 주임 성 베드로 신부에게, 윤태호 충남지사로 부터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성 신부는 재한 27년 중 13년간을 논산본당 주임으로 재임하시면서, 메마른 이 땅의 영혼들을 돌보는 한편 양로원, 나병환자 요양소 및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였고, 극빈자와 피난민들을 돕는 일을 평생의 큰 낙으로 삼아왔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공헌한바 큼으로 도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한다.”¹⁶⁰

생제 신부의 표창은 논산본당에서 비롯된 여러 사회복지와 교육 활동이 사회 안에서 그만큼 인정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쟁 이후 꾸준히 계속된 이러한 활동들은 그동안 ‘가난한 용기장이들이나 믿는 종교’로 인식되던 천주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 신심 운동의 활성화

전쟁 후 10여 년간 논산본당은 선교와 복지 활동뿐만 아니라 신심 운동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때였다. 이때의 신심운동은 본당 내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도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신심 단체가 생겨나 논산본당은 물론 교구 내 다른 본당들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1) 6·25전쟁 순교자들의 추모

전쟁 중 논산의 많은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감금, 피랍, 피살되었다. 그중 인

민군들 앞에서 신앙을 증거한 조관호(스테파노)를 기념하여 1952년 생제 신부는 교우들과 함께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¹⁶¹

이후 1955년 들어 제2대 주임이었던 공베르 신부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공베르 신부는 1942년 일본인들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논산본당을 떠나게 되었다. 비록 공베르 신부가 논산을 떠났어도 20년 가까이 주임으로 있었기에 논산 교우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의로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1955년 12월 8일 루르드 성모 동굴을 봉헌하면서 그의 순교비도 함께 건립하였다.

공베르 형제 신부의 순교



죽음의 행진 경로

논산본당에서 ‘공 신부’로 불리던 공베르 신부는 자신의 형과 함께 선교사로 파견되어 1900년 10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흔히 형 양투안 공베르 신부는 ‘큰 공베르’, 논산본당 주임이었던 동생 줄리앙 공베르 신부는 ‘작은 공베르’로 불렸다.

두 형제 신부는 1900년 8월 1일 사제품을 같은 날 받았기에 1950년에 함께 금경축을 맞았다. 그해 6월 24일 동생 공 신부는 금

경축을 기념하기 위해 형이 있는 서울 혜화동의 가르멜 수녀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전쟁이 났고, 자기의 소임지가 있는 인천 샬트르 수녀원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생 신부는 7월 15일 형과 함께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 나흘 후 그들은 평양으로 압송되었고, 이어 고통스러운 행진 끝에 10월 말 압록강 인근의 만포(滿浦)로 끌려갔다.

전쟁이 불리해지자 인민군은 외국인 수인들을 수시로 이동시켰다. 그해 11월 초에는 10여 일 동안 눈보라 속에서 180km를 행진하여 중강진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많은 수인들이 길에서 죽거나 걷지 못하면 총살되었기에 흔히 ‘죽음의 행진’이라 부

른다. 이미 70세가 넘는 두 형제 신부는 중강진 수용소에 도착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 형 앙투안 공베르 신부가 11월 12일에 먼저 죽음을 맞이할 때 동생 신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형을 떠나보냈다.

“형! 형은 이제 죽을 거야. 형은 아무 두려움도 없이 떠날 수 있어. 하느님께서 형을 받아주실 테니까. 잠시 후면 하늘이 형에게 열릴 거야. 하지만 내일 나도 형 만나러 갈거야.”

실제로 이튿날인 1950년 11월 13일 동생 줄리앙 신부도 죽어 형 옆에 묻혔다. 하지만 이미 땅이 얼어 무덤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형제 신부의 무덤은 돌무더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2) 성체거동

본당 선교 활동과 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지자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그 결과 비신자들이 먼저 생제 신부에게 청하여 자기 동네를 방문하고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또한 경찰들이 생제 신부에게 정신교육을 위해 특강을 청해오기도 하였다. 경찰들의 이러한 행동은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물론 6·25전쟁 기간에도 경찰은 천주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던 조직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우들은 자신감을 얻어 전통적 신심 활동인 성체거동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아직 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성체성혈대축일에 성체거동을 하였다. 이날 2천 5백여 명이 참석하였고, 이듬해 1952년 성체거동에는 3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1955년 6월 12일 성체거동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날은 마침 논산훈련소의 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성체거동을 외부에서 하기가 곤란하였다. 하지만 경찰들의 협조 속에 훈련소 앞길을 1시간 동안 통제한 가운데 5천여 명의 교우들과 비신자들이 무리를 지어 행렬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관례에 따라 본당 배구대회도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1956년 5월 3일에

도 변함없이 성체거동이 거행되었다. 이러한 활기는 이농현상으로 교우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신심 활동은 아니지만 논산본당에서 개최하는 행사들은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1959년에 있었던 무성 영화 상영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성모승천대축일을 맞아 8월 14일과 15일 양일 저녁에 로마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관한 영화 두 편을 상영하였다. 무성 영화였기에 대건중학교 교리교사 김 타대오가 나레이션을 작성하여 축음기에 녹음을 해 넣었다. 영화와 녹음이 서로 맞지 않아 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향은 대단하였다. 첫날은 예비자 교리반에서 상영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하였다. 둘째 날은 학교 운동장에서 상영했음에도 자리가 부족하여 젊은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볼 정도였다.¹⁶²

3) ‘루르드 성모 동굴’ 봉헌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다음 해인 1954년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교리가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해는 ‘성모 성년’으로 선포되었기에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념행사들이 있었고, 대전교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합덕, 공세리, 서산, 예산 본당 등 역사가 오래된 본당들은 외부에 성모상을 설치하였고,

1955년 12월
성모당 봉헌식



루르드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영화 상영이 성행하였다.

몇몇 본당들은 재정상의 이유로 성모상을 건립하지 못했는데 논산본당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논산을 지나다가 이러한 사연을 듣고는 50,000환을 생제 신부에게 기부하였다.¹⁶³ 이에 자극을 받은 논산 교우들은 다른 어떤 본당보다도 더 좋은 성모상을 건립하겠다고 기부금의 10배인 500,000환을 현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반적인 성모상이 아닌 루르드의 성모 동굴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의지 속에 비록 대구 성모당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천지모후’라고 적은 성모 동굴을 완성하여 1955년 12월 8일¹⁶⁴ ‘성모무염시태축일’에 봉헌식을 가졌다. 이때 전쟁 중에 피살된 공베르 신부의 순교비도 성모 동굴 곁에 안치하였다.

4) 레지오마리아에 도입

논산본당은 대전교구에서 처음으로 레지오마리아에 브레시디움을 창단하고, 첫 꾸리아를 설립한 본당이다. 1957년 3월 3일 논산본당에 천지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창단됨으로써 레지오가 첫발을 내디뎠다.¹⁶⁵ 첫 브레시디움의 명칭은 ‘천지의 모후’였는데 이미 2년 전 봉헌된 성모 동굴의 명칭에서 유래한 듯하다.

같은 해 8월 8일에는 강경본당에 ‘죄인의 의탁’ 브레시디움이 대전교구에서 두

레지오마리아
도입 기념비



—
1959년
3월 12일
논산 루르드
성모 꾸리아
창립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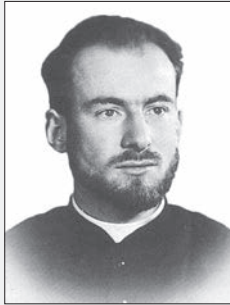


번째로 창단되었다. 논산과 강경에 먼저 레지오가 도입된 데는 인접한 전주교구의 영향 때문이다. 전주교구에는 이미 1955년부터 레지오가 활동하고 있었고, 전라북도와의 인접하여 본래 나바위본당과 하나의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논산본당은 전주 꾸리아와 접촉하여 첫 브레시디움을 창단할 수 있었다.

논산과 강경에 이어 천안과 대전에도 브레시디움들이 창단하는 가운데 논산본당에서는 1958년 5월 26일 본당에서 두 번째로 ‘성실하신 정녀’ 브레시디움이, 10월 16일에는 세 번째 브레시디움 ‘능하신 정녀’가 창단되었다.¹⁶⁶

여러 본당에 브레시디움이 속속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대전교구에는 아직 꾸리아가 없었다. 따라서 논산과 강경본당의 브레시디움들은 전주교구의 꾸리아에 소속되어 있었다. 1958년 들어 논산본당은 꾸리아 조직을 신청하였고,¹⁶⁷ 이듬해 1959년 3월 12일 ‘루르드의 성모’ 꾸리아가 논산에 설립되어 김현룡(마티아)이 첫 단장을 맡았다. 이리하여 대전교구의 첫 꾸리아가 논산본당에서 생겨났다. 두 번째 꾸리아는 1960년 4월 대흥동본당에서 창설되었고, 이 꾸리아들이 바탕이 되어 1961년 7월 9일 ‘다윗의 적루’ 꼬미시움이 생겨남으로써 대전교구 자체로 레지오마리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블랑(백요한) 신부(1927~현재)와 레지오



파견 당시 블랑(백요한) 신부

6·25전쟁 끝나자 파리외방전교회에는 대전교구에 새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전쟁 중 대전교구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 9명 피살됨으로써 사목활동을 할 인원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1953년 올리비에 Ollivier, Jean-Marie (1929~2004, 한국명: 오일복)와 제제구 Jézégou, Robert (1930~, 한국명: 최제구) 신부가 파견되었고, 1954년에 블랑 Blanc,

Jean Gabriel (1928~, 한국명: 백요한)과 뒤퐁 Dupont, René (1929~, 한국명: 두봉) 신부가 파견되었다.

네 명의 선교사 중 블랑 신부는 포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1956년 7월 논산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1958년 4월까지 2년 동안 보좌로 활동하며 생제 신부에게 선교 활동을 배웠다. 당시 논산본당은 전쟁 이후 활발한 선교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광주교구에 레지오마리아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생제 신부는 블랑 신부를 광주교구로 보내어 레지오마리아 교육을 받으라 했고, 이후 레지오가 논산에 도입되었다. 블랑 신부는 다른 곳에서도 본당 사목을 하며 레지오를 가장 중요한 단체로 여겼다.¹⁶⁸

5. 연무본당 분리

1951년 논산에 육군훈련소가 들어서고, 연무에 있던 포로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들을 석방한 후 정착시킴으로써 연무지역에 인구가 급증하였다. 같은 시기에 몇몇 피난민 교우들이 생계를 위해 훈련소 주변으로 이주해왔다.¹⁶⁹ 그들은 우시장이 있을 정도로 컸던 마산 시장(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근처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1955년부터 생제 신부가 그곳으로 관공을 나가면서 마산공소가 시작되었다.¹⁷⁰



인구 증가에 따라 연무지역에 본당 신설 필요성을 절감한 생계 신부는 1956년에 마산공소 교우들에게 성당 부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당시 연무읍내는 충청남도 와 전라북도의 경계였기에 몇몇 후보지들 중 충청남도에 속한 현재의 연무본당 자리에 8,000여 평을 마련하였다. 1957년부터 훈련소 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성당 대지를 정비하고 4월 중순에 성당 기공식을 가졌다. 교우들이 노동 봉사를 해가며 노력한 결과 1958년 6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사제관과 성전을 완공하였다.

1958년 8월 대전교구는 마산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초대 주임 신균식(도미니코) 신부를 파견하였다. 마산리, 택리, 죽평리, 은진, 화정, 갈매울, 양촌, 쇠목, 말목(반목), 진동 공소의 973명 교우가 새 본당을 이루었다. 연무본당은 초기에는 마을 이름을 따라 ‘마산본당’으로 불리다가 1963년에는 ‘연무대본당’, 1973년에는 ‘연무본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연도	본당	교우 총수					성인 영세	유아 영세	냉담자	예비자
		합계	남	여	전입	전출				
1957	논산	3,349	1,585	1,764	156	62	323	159	153	553
1958	논산	2,712	1,248	1,463	35	287	39	166	129	232
	연무	973	410	563	15		27	15		
1959	논산	2,746	1,231	1,475	50	143	161	107	180	150
	연무	1,116	532	584	45	43	44	34	47	129

—
현재 연무성당
전경

